

한국어와 중국어 對等합성어 결합순서의 대조 연구

— ‘인지언어학적 대조’를 중심으로 —

최 영**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한국어와 중국어 대등합성어 결합순서의 대조 |
| II. 한국어 대등합성어의 인지적 결합순서 | V. 나가는 말 |
| III. 중국어 대등합성어의 인지적 결합순서 | |

I. 들어가는 말

한국어에는 ‘밤낮, 여기저기, 오가다’ 등과 같은 대등합성어가 있다.¹⁾ 대등합성어는 형태와 의미의 양쪽에서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합성어이다. 대등합성어는 국어만 가진 특별한 언어현상이 아니라 중국어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밤낮’을 중국어로 하면 ‘晝夜’이고 ‘오가다’를 중국어로 하면 ‘來去’이다. 두 언어 대등합성어의 결합순서를 대조하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밤낮’의 중국어 결합순서는 ‘낮밤’이고 ‘오가다’는 중국어에서 ‘오가다’라는 결합순서로 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 같은 뜻의 단어라 할지라도 양국의 결합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낱말에 있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수원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한국 수원대학교 중어중문과 조교수

1) 국어의 합성어에는 대등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가 있다.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78, 688쪽).

어서 소리와 뜻의 관계가 자의적으로 생성되었다고 생각 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구성요소가 모여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용자의 관심이 반영되기 마련이다²⁾. 그래서 대등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언중들의 심리기제가 반영된다고 생각된다. 대등합성어의 어순은 대체로 고정되어 있다. 이는 A와 B가 합성된 후의 구조가 'AB'형이면 'BA'형 등으로 교체될 수 없으며 항상 'AB'형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고정된 어순, 즉 선행요소 A와 후행요소 B의 결정에는 언중의 심리기제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등합성어 결합 순서는 많은 부분들이 같거나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두 나라 언중들의 다른 심리기제가 반영된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고는 두 언어의 대등합성어의 결합 순서를 대조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각 국 언중의 심리기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II. 한국어 대등합성어의 인지적 결합순서

언중의 심리기제가 대등합성어에 어떤 모습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임지룡(2010)과 노대규(1982)에서 설명한 것이 있다. 임지룡(2010)은 시간의 합성, 수의 합성, 성의 합성, 거리의 합성, 방향의 합성, 적극성과 소극성의 합성, 긍정과 부정의 합성의 8가지 심리원인으로 설명하였으며, 노대규(1982)는 발생순서, 화자위치, 중요성, 남성, 성인, 강한 힘, 긍정, 위와 아래의 위치, 안과 밖의 위치의 8가지 심리원인으로 설명하였다. 이 두 사람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크게 지각적 인지, 심리적 인지, 사회적 인지로 다시 개괄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한국어 대등합성어의 결합순서를 주로 이 3가지 인지적 순서로 나누어서 설명하겠다.

2)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2010, 87쪽.

1. 지각적 인지

지각과 사고의 관련성에 관하여 채완(1986:125)은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앞의 공간과 지면은 시각, 청각, 촉각으로 지각되고 이를 사고하는데 용이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사람은 지각적으로 다른 것과 구별하기 용이한 형태를 먼저 인지하며, 추상적인 대상보다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쉽게 개념화를 하고 정확히 인지한다.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앞의 공간과 지면 위는 지각하기에 적절한 위치여서 실제로 정보 처리의 시간이 덜 걸린다고 한다(채완, 1986). 또한 공간상에서 인체는 오른쪽-왼쪽, 위-아래, 앞-뒤와 같은 방향과 위치를 갖는데 지각과 사고의 순서 또한 이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간과 관련된 개념에 있어서 채완(1986:130)은 시간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지각자인 ‘나’가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에 대해 모두 앞과 뒤로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간의 진행 방향은 ‘과거-현재-미래’이지만 지각자의 위치가 ‘현재’에 있으면, 현재를 먼저 지각하고 먼저 발화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객관적 시간 순서로 만들어진 대등합성어가 있고, 주관적 인지 순서로 만들어진 대등합성어도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내일, 내후년...’은 객관적 시간 순서이며, ‘엇그저께, 전전해...’는 주관적 인지 순서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어도 이와 똑같은 인지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내일, 내후년’은 ‘今明天, 明后天...’으로 객관적인 시간 순서를 지킨다. 그러나 ‘엇그저께, 전전해’와 같은 시간 표현은 중국어에서 대등합성어로 이루어지지 않고 ‘三天前(삼일전), 大前年(대전년)’과 같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공간과 관련된 개념에 있어서 채완(1986:149)은 화자에 가까운 것을 먼저 발화하는 전형적인 예로 ‘이, 그, 저’와 관련된 표현을 들고 있다. 대등합성명사의 경우는 ‘이것저것, 이곳저곳, ...’과 같이 항상 화자의 위치와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포함한 명사가 선행한다. 이는 중국어에서도 ‘这儿那儿, 这里那里...’로 표현하고 한국어와 동일하게 화자와 가까운

것은 먼저 나오고 화자와 먼 것은 뒤에 온다.

2. 심리적 인지

대등합성어는 심리적 과정의 인지 단계를 갖는 것으로도 다루어 질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타, ‘한중/중한, 천만개, 천백번...’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지각자인 ‘나’를 포함한 환경을 우선 지각하고 이를 공감하며 심리적으로도 가깝게 느낀다. 즉, ‘자타’의 ‘자’를 지칭하는 표현에서 볼때 내가 포함된 혹은 심리적으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의 어휘가 선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범위를 더욱 넓혀 두 나라를 표현할 때에 한국에서는 ‘한중’이라 표현하며 중국에서는 ‘중한’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자신의 국가를 더욱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심리적 인지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여진다. 주관적인 단어뿐만 아니라 객관적 관점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수없이 많은 수’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자주 쓰이는 ‘천만’이나, ‘천백’ 등의 단어에서 ‘천’은 사람들이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숫자이고 상기 단어는 그러한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 인지

언어는 사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중요도가 어순에 자연스럽게 반영되기도 한다. 사회에서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은윗사람을 뜻하는 것이 선행하고, 아랫사람을 뜻하는 것이 후행한다. 예를 들어, 어이아들, 어비딸..., 등은 중국어에서도 ‘父子(부자), 母女(모녀)...’ 등의 비슷한 어순의 단어가 존재한다.

남성과 여성의 지칭 어휘에서는 유교(儒敎)문화의 남존여비 사상의 영향으로 이러한 사회 가치관이 어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남녀, 오누이, 아들딸...’, ‘소년소녀, 신랑각시...’,

등과 같이 남성 지칭 어휘가 대부분 선행한다. ‘아들딸’의 경우는 ‘딸아들’의 형태와 함께 존재하는데 ‘아들딸’은 사회적 선호도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고, ‘딸아들’의 경우는 선행어의 음절수가 짧은 경우에 안정된 형태로 여기는 형태적인 인지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어에서도 한국과 같이 남성 지칭 어휘가 대부분 선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男女, 兄妹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비하의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에서 여성 지칭 어휘가 선행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순에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예를 들어 ‘연놈’같이 타인을 비하하는 언어에서는 남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뒤에 오고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앞에 음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일반적으로 남녀를 함께 지칭하는 언어와는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대상이나, 비중이 높은 대상이 그렇지 않은 어휘에 비해 선행한다. 이는 총칼, 문창, 논밭, 콩밭.... 등이 있는데 ‘총칼’에 대해 채완(1986)은 중요성으로, 노대규(1982)는 강한 힘으로 각각 설명하고 있다.

그 이외에 형태적 인지 순서도 있는데 이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본 층위에는 보통 음절수가 적고 형태적으로 간단하며, 더욱 뚜렷하다. 이런 점에서 음절수가 적은 어휘는 선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어의 고유어의 대등합성명사로 김승렬(1988)에서 제시한 77개 대등합성명사의 음절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선행어의 음절수와 후행어의 음절수가 같은 경우(44개)
 - 1음절-1음절: 손발, 눈코, 깃털 등 21개(‘갈뿔’ 포함)
 - 2음절-2음절: 고의적삼, 가로세로, 어제오늘 등 23개(‘한맘한뎀’ 포함)
- 2) 선행어의 음절수가 후행어의 음절수보다 적은 경우(24개)
 - 1음절-2음절: 갓창옷, 장김치, 비바람 등 21개(‘위아래’ 포함)
 - 1음절-4음절: 갓두루마기 등 1개
 - 2음절-3음절: 바지저고리, 어이머느리 등 2개

3) 선행어의 음절수가 후행어의 음절수보다 많은 경우(9개)

2음절-1음절: 어비딸, 어이딸, 하늘땅 등 8개(‘가을봄’, ‘아래위’ 포함)

3음절-2음절: 한마음 한뜻 1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선행어와 후행어의 음절수가 같은 경우가 많은데, 형태적으로도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듯하다. 또 선행어의 음절수와 후행어의 음절수가 다른 경우에는 음절수가 적은 어휘를 선행시킨 형태를 안정적인 구조로 인지하는 듯하다. 중국어에서는 한자가 한 글자가 하나의 뜻을 가진다는 특별한 특징 때문에 대등합성어는 거의 다 1음절-1음절, 2음절-2음절로 이루어진다. 중국어의 대등합성어의 결합 순서에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특이한 한가지는 발음인데 성조의 평성과 측성, 그리고 자음의 유성음과 무성음이 합성어를 만들 때 영향을 미친 듯하다.

Ⅲ. 중국어 대등합성어의 인지적 결합순서

한국어의 대등합성어에 비해 중국어의 대등합성어가 양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현대한어사전〉³⁾을 검토해 본 결과 사전에 실려 있는 대등합성어는 총 254개⁴⁾가 존재 하였다 . 중국어의 대등합성어도 ‘AB’ 혹은 ‘BA’형이 고정되어 있으며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 또한 결합 순서는 의미 순서와 성조 순서의 두 가지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데 ‘의미 순서’는 논리적인 순서가 반영된 것이며 언중들이 사물의 발생과 발전하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언어 요소를 배정한다. 이것은 언어를 초월한 공통적인 성격이지만 많은 상황에서 대등합성어의 결합 순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사고 방식, 문화 특성과 언어 습관을 반영한다. 중국어에서 대등합성어의 결합 순서 또한 주로 지각적, 심리적, 사회적 인지로 나누어서 설

3) 现代汉语词典(第5版),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北京商务印书馆, 2005.

4) 부록 참고. 본인의 실수 판단으로 인해 누락된 것 있을 수 있음.

명할 수 있다.

1. 지각적 인지

시간, 공간, 척도 등 개념을 나타내는 대등합성어는 단어가 생성될 때 그 정도가 크고, 위치가 높으며, 양이 많은 것을 나타내는 구성 요소가 앞에 오고 그와 상반되는 단어가 뒤에 온다. 예를 들어, “长短(장단)、深浅(신천)、肥瘦、主次、干支、高低、上下、天地、起伏、手足、手脚、大小、多少、多寡” 등의 단어는 인간의 인지구조와 현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早晚、朝夕、旦夕、晨昏、昼夜、日夜、夙夜、春秋、始末、首尾、先后、产销、断续、作息” 등 시간과 계절을 나타내는 대등합성어의 결합 순서는 엄격하게 사물의 발생, 발전하는 순서, 혹은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심리적 인지

대등합성어는 또한 중국 사람들이 ‘진, 선, 미’를 숭상하고 ‘가, 악, 추’를 싫어하는 심리 기제를 반영한다. 즉, 단어 구성 시 ‘좋은 것’을 앞에 놓고, ‘ 좋지 않은 것’을 뒤에 놓는다. 예를 들어, “褒贬、恩怨、甘苦、功罪、好歹、好赖、好恶、吉凶、利弊、利害、廉耻、荣辱、赏罚、胜败、胜负、兴衰、盈亏、优劣、真伪” 등이 있다.

3. 사회적 인지

대등합성어의 결합순서는 대부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앞에 나오고 비천하게 여기는 자는 후에 온다. 예를 들어, “尊卑、贵贱、宾主、君臣、将士、臣民、干群、军民、官兵” ; 남자가 앞에 오고, 여자가 뒤에 온다. 예를

들어, “男女、夫婦、夫妻、父母、子女、弟妹、公婆、儿女” 등이 있다. 이것은 오래된 중화민족의 등급관념이 반영과 함께 유가 사상의 도덕논리까지 반영되었다. 소위 “君君、臣臣、父父、子子”, “君民有义, 夫妇有別”이 이에 속한다. 중국은 가족, 혈연관계를 중시하며 말과 행동에서 나이 많은 분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대등합성어를 만들 때도 반영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앞에 나오고, ‘나이 적은 사람’이 뒤에 온다. 예를 들어, “长幼、父子、兄弟、姐妹、老少、老幼、老小、婆媳、祖孙、亲疏” 등이 있다.

그 이외에 성조 요소의 영향도 있는데 현대중국어에서는 주로 ‘음평’, ‘양평’, ‘상성’, ‘거성’의 순서에 따라 배정된다. 예를 들어, ‘成敗(성패)’는 앞 구성 요소의 성조가 양평이고 뒤 구성 요소의 성조가 거성이다. 이 대등합성어의 결합 순서는 성조의 순차적 배열에도 합당하고 중국 사람들이 미를 좋아하고 추를 싫어하는 심리에도 부합하는데 이와 같은 단어들은 ‘伯仲、长短、本末、颠末、姊妹、兴亡、生死、早晚、高低’ 등이 있다. 하지만 ‘轻重(경중)’이라는 단어처럼 정도가 높은 것부터 정도가 낮은 것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대등합성어의 의미 순서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앞의 단어가 양평, 뒤의 단어가 거성으로서 성조 순서의 원칙에는 부합하는 단어들이 있다. 이와 같은 단어에는 迟早、输赢、黑白、损益、幽明、冷暖、输赢 등이 있으며 모두 다 의미 순서 원칙을 어기지만 성조원칙에는 부합되는 단어들이다. 중국어에서 대등합성어는 대부분 결합 순서가 일정하고 의미 순서와 성조 순서를 동시에 지킨다. 하지만 위와 같이 두 결합 순서가 동시에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의미 순서와 성조 순서가 서로 경쟁하게 되고 이때는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인지적 결합원칙의 영향을 받는다.

Ⅳ. 한국어와 중국어 대등합성어 결합순서의 대조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등합성어 인지적 결합순서를 살펴보면 앞뒤 두 구성요소가 일정한 순서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순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의미상 차이를 가져오거나 특정 순서로 병렬되지 않으면 합성어로서 성립하지 않는 어순제약 현상도 나타난다. 선행어의 의미적 특징으로 규칙을 찾거나, 음운론적 규칙을 찾기도 한다.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등합성어의 인지적 결합순서를 종합하여 또 다시 세부적인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두 언어가 대응되는 대등합성어를 제시하여 결합순서가 다른 것을 찾아내는 한편 두 나라 언중들의 심리 기제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 3가지 범주는 앞에 제시한 것과 같이 지각적 인지, 심리적 인지, 사회적 인지로 나누며, 지각적 인지는 또 다시 시간과 공간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시간범주는 정태자연시간, 정태기준시간, 동태시간으로 나눠서 제시하고, 공간범주는 다시 절대공간과 상대공간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심리적 인지는 주로 성질, 감정, 성별 등 방면을 다루고, 사회적 인지는 주로 주종, 상하 등 방면을 다룰 수 있다. 구체적인 예와 대응되는 두 나라 언어의 대등합성어의 결합순서의 대조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비교에서 “?”로 표시된 것은 한국어와 중국어 결합순서가 다르거나 두 가지 표현이 있는 대등합성어이다.

〈표 1〉 한국어와 중국어 대등합성어의 대조표⁵⁾

구분	범주	해석	중국어 대등합성어	한국어 대등합성어	비고
심리 적 인지	성질	긍정>부정	好坏	잘잘못	
			真偽	진위	
			胜败/輸贏	승패	
			吉凶	길흉	

5) 이 표에서 제시한 한중 대등합성어는 부록에서 제시한 중국어 대등 합성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에서도 대등합성어로 표현되는 예만 선택했다.

심리적인지	성질	긍정>부정	安危	안위	
			悲喜	희비	? 6)
			赏罚	상벌	
			优劣	우열	
			善恶	선악	
			贵贱	귀천	
			有无	유무	
			美丑	미추	
			喜怒	희로	
			褒贬	포폄	
			廉耻	염치	
			浓淡	농담	
			存亡	존망	
			得失	득실	
			荣辱	영욕	
			伸缩	신축	
			甘苦	간고	
			是非	시비	
	功过	공과			
	兴亡	흥망			
	감정	핍>포	祸福	화복	
			贫富	빈부	
			苦乐	고락	
			损益	손익	
			死活	사활	
			难易	난이	
		적극>소극	悲欢	애환	
			曲直	곡직	
			黑白	흑백	
			阴阳	음양	
幽明			유명		
长短			장단		
	高低	고저			
	深浅	심천			
	宽窄	광협			
	薄厚/厚薄	후박	?		

6) “?”로 표시된 것은 한국어와 중국어 대등합성어의 결합순서가 다른 것이다.

심리적 인지	감정	적극>소극 ⁷⁾	多少	다소	
			缓急	완급	
			朝野	여야	
			妻妾	처첩	
			书画	서화	
			手脚 ⁸⁾	손발	
			金银	금은	
			牛马	마소/우마	?
			刀枪	총칼	?
			眼鼻	눈코	
			衣食	옷밥	
			矛盾	모순	
			浮沉	부침	
			干支	간지	
			升降	승강	
			生死	생사	
	文武	문무			
	병렬(동등)	山水	산수		
		凤凰	봉황		
		俯仰	부양		
时空		시공			
行列		행렬			
往来		왕래			
宇宙		우주			
言行		언행			
經絡	경락				
성별	남>여	男女	남녀		
		夫妇	부부		
		少年少女	소년소녀		
		兄弟姐妹	형제자매		
사회적 인지	향배	향>배	进出	드나다	
			来回	나들다	
			买卖	매매	

7) 대부분 대등합성어의 결합관계는 ‘적극>소극’의 순서를 지키지만 특례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서 ‘轻重(경중), 反正(정반)’은 ‘소극>적극’의 순서이다.

8) ‘手脚’도 ‘적극>소극’의 분류에 포함시킨 이유는 ‘손’이 ‘발’보다 더 중요시하는 언중들의 심리기제를 반영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지	향배	향>배	开关	여닫다		
			来去	오가다		
			出没	출몰		
			出纳	출납		
			出入	출입		
			任免	임면		
			收支	수지		
			进出	진출		
			进退	진퇴		
	주종	주>종	主客	주객		
			君臣	군신		
			师生	사제		
			士兵	병사/사병	?	
	상하	상>하	上下	상하		
			天地	천지		
			首尾	두미		
			手脚	손발		
			父子	부자		
			兄妹	오누이		
			母女	모녀		
			前后辈	선후배		
			姐妹	자매		
	지각적인지	정태 자연 시간	조>석	朝夕	조석	
				昼夜	주야	
				昼夜	밤낮	?
				日月	일월	
		정태 기준 시간	금>후	始终	시종	
始末				전말		
今天				오늘내일		
早晚				아침저녁		
早晚				조만간		
今两天		금명간				
동태 시간		선>후	因果	인과		
			问答	문답		
			上下车	승하차		
			升降	승강		
			装卸	하역		
本末	본말					

지 각 적 인 지	동태 시간	선>후	往返	왕복	
			呼应	호응	
			教学	교학	
			离合	이합	
			风雨	비바람	?
	절 대 공 간	내>외	内外	내외	
			中外	중외	
		표>리	内外	안팎	
			血肉	혈육	
			身心	심신	?
			灵肉	영육	
		标本	표본		
		동>서	东西	동서	
	동>남	东南风	남동풍	?	
	남>북	南北	남북		
	상 대 공 간	전>후	前后	전후/앞뒤	
			春秋	춘추	
		좌>우	左右	좌우	
		가로>세로	横竖	가로세로	
		중>횡	纵横	중횡	
근>원		这里那里	여기저기		
	远近	원근			
상태	동>정	动静	동정		

위의 대조표에 제시한 134개 대등합성어는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모두 존재한 상용된 대등합성어였다. 그 결과 두 언어의 대등합성어의 결합 순서는 대체로 비슷하나 몇 가지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중국어에서 ‘총칼’은 ‘칼총(刀枪)’으로 표현한다. 한국어의 “총칼’에 대해 채완(1986)은 중요성으로, 노대규(1982)는 강한 힘으로 각각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총칼’의 ‘총’은 한자어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총 03(銃) 「명사」 화약의 힘으로 그 속에 든 탄환을 나가게 하는 무기.
권총, 기관총, 소총, 엽총 따위가 있다. ≡총포01(銃砲)⁹⁾

한국어에서 ‘총칼’의 ‘칼’은 고유어로서 어휘해석은 아래와 같다.

칼은 「명사」, 물건을 베거나 썰거나 깎는 데 쓰는 도구. 날과 자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 한국어에서 고유어인 ‘칼’은 조어법에서 한자어 ‘도(刀)’의 의미로 군도(軍刀), 장도(長刀) 등으로도 쓰인다. 여기서 ‘총’은 화약무기이고 ‘칼’은 비화약무기이므로 중요성 혹은 강한 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칼총’으로 형성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국어의 ‘槍(창)’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한국어의 ‘총’에 해당하는 화약의 힘으로 탄환을 나가게 하는 무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手槍, 机关槍’ 등이 있다. 중국어의 ‘槍’의 또 다른 의미로는 한국어의 ‘창’에 해당되는 의미이다. 창(槍) 「명사」, 예전에, 긴 나무 자투 끝에 날이 선 뾰족한 쇠촉을 박아서 던지고 찌르는 데에 쓰던 무기로 해석하고 있다.

혹시 중국에서 ‘刀’가 ‘槍’보다 먼저 출현한 것일 까? 중국어에서 ‘刀槍’은 당나라 시기 문헌에서 2회 출현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자주 등장한다. (이하 중국어 문헌 고찰은 북경대말뭉치 CCL을 참고로 한 것임)화약의 발명이 중국의 송나라 시기이므로 당나라 문헌에 등장한 ‘刀槍’은 ‘총’의 의미가 아니라 ‘창’의 의미로 통한다. 북경대학교 언어말뭉치에서 ‘槍’은 주나라 시기의 문헌에서는 검색할 수 없고, 춘추시기 문헌에서 2회 출현한다. 반면, ‘刀’는 그보다 앞선 주나라 시기 문헌에 4회 출현하므로 중국에서 ‘刀’가 ‘槍’보다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刀槍’이란 어휘는 한참 뒤인 당나라 문헌에서 발견되는데 천여년 전에 이미 사용되기 시작한 ‘칼’과 ‘창’의 전후 시기를 따져 ‘刀槍’로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칼총(刀槍)과 같은 조어법에 해당되는 창검(槍劍)의 경우, 창과 검이 모두 춘추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되지만 ‘창’은 2회만 출현

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2000 참고.

하는 반면 ‘검’은 38회 출현하며 전국시기에는 ‘창’은 5회, ‘검’ 80회, ‘도’ 63회 사용된다. ‘창’의 사용빈도가 낮고 ‘검’이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할 칼(刀)의 사용빈도와 비슷한 점을 고려했을 때 ‘검’은 춘추시기에 이미 널리 사용되었고 춘추초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검창’ 형태가 아닌 ‘창검’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뿐만 아니라 ‘창’과 ‘검’이 같이 ‘창검’으로 사용된 시기는 한참 뒤인 명나라 문헌에서 검색된다. 이것도 ‘창’과 ‘검’이 사용된 시기를 따져서 ‘검창’이 아닌 ‘창검’으로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刀槍’이라는 대등합성어의 생성 원인은 ‘강한 힘’이나 ‘출현 순서’로 모두 해석할 수 없다.

또한, ‘현모양처’라는 단어에선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어휘를 아내의 역할에 관한 어휘보다 선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국어에선 이와는 달리 ‘賢妻良母(현처양모)’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비교해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아내의 역할 보다 어머니의 역할을 중국에 비해 더 중시하는 문화적인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대등합성어의 결합 순서가 다른 것 있는데 중국어는 바깥에서 안으로 한국어는 안에서 바깥으로 하는 순서를 선호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서는 ‘表里, 身心’ 한국어에서는 ‘안팎, 심신, 영육’ 등 있다.

인칭대명사의 결합 순서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신에게 중요한 단어가 앞에 선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가정 하에 중국어의 ‘피(彼)차(此)’와 한국어의 ‘내남(我別人)’이라는 단어에서 중국은 타인을, 한국은 본인을 우선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어에서도 ‘피차’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한자어이니까 ‘내남’이라는 고유어가 한국 민중들의 심리기제를 훨씬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어는 자아에서 출발해서 자아실현에 이르는 사유 특징이 있고, 주체 중심의 언어 표현을 하고 반면 한국어는 자아에서 ‘他我’를 거쳐 자아를 실현하는 사유 특징이 있고 객체 중심의 언어 표현을 한다.

또한, 한국어에서 ‘마소’와 같은 대등합성어는 중국어에서 ‘소마(牛馬)’로

표현하고 있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우마’를 사용하지만 ‘우마’도 한자어라서 ‘마소’라는 고유어가 한국 민중들의 심리기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왜 말보다 소가 우선됐을까? 그 이유를 알아내려면 역사적으로 중국 사람한테 소가 말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그 이외에는 ‘방향’관련된 ‘东南风’은 한국어에서 ‘남동풍’이고, 선후관계로 속하는 ‘风雨’는 한국어에서 ‘비바람’의 결합순서이다.

‘암수’라는 대등합성어가에 대응되는 중국어 대등합성어는 ‘雌雄(암수)’도 있고, ‘公母(수암)’도 있다. 사회적 인지를 나타내는 대등합성어는 姐妹(자매), 文武(문무), 夫妇(부부)와 같이 중국어와 한국어가 대부분 뒷사람부터 아랫사람으로 하는 순서이다.

V. 나가는 말

본고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대등합성어의 결합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는 형식과 의미를 유연적인 관계로 보는데, 대등합성어와 구성성분 사이의 의미적 유연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대등합성어의 어순에 인지구조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어 대등합성어의 인지적 결합순서에는 주로 지각적 인지, 심리적 인지, 사회적 인지 그리고 형태적 인지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중국어의 대등합성어의 인지적 결합순서도 같은 인지 범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성조 요소의 영향도 있다.

마지막으로 두 언어에서 모두 대등합성어 구조에 속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등합성어를 나열하여 대조시켰다. 그 결과는 두 언어의 대등합성어의 결합 순서는 대체로 비슷하나 몇 가지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우선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대등합성어의 결합 순서가 다른 것이 있다. 중국어는 바깥에서 안으로 가는 순서이고 한국어는 안에서 바깥으로 가는

순서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서는 ‘表里, 身心’, 한국어에서는 ‘안팎, 심신, 영육’ 등 있다.

인칭대명사의 결합 순서 또한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어에서는 보통 ‘피(彼)’는 앞에 있고 ‘차(此)’는 뒤에 온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내남(我別人)’이라는 단어도 있다. 이는 중국어에서 청자 우선의 원칙이, 한국어에서는 화자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피차’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것은 한자어라서 고유어 ‘내남’이 언중들의 심리기제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인지의 관계범주를 나타내는 대등합성어는 중국어와 한국어 대부분이윗사람부터아랫사람으로하는 순서이나 중국어 ‘官民’, ‘土兵’는 한국어에서 관민/민관, 병사/사병¹⁰으로 두 가지 표현이 있다. 이는 한국어의 언어 자체가 어느 정도의 민본(民本)주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 References >

- Kim, SeungRyeol, “A Study of Word Order in Korean”, *A Doctorate Thesis, Korea University*, 1988.
- Kim, Zae Im, “A Study of Coordinate Compound Words in Korean”, *A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1993.
- Kim, Byung il, *A Study of Compound Words*, Yeok luck, 2000.
- Dae-Kyu Noh, “Some Pragmatic-Semantic Laws of Complex Words in Korean”,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 4, (1982):5-27.

10) 사병: <군사> 장교가 아닌 부사관과 병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때로는 부사관 아래의 병사만을 이르기도 한다. 병사: 부사관 이하의 군인. 중국에서는 ‘土兵’만 가능하며 의미는 ‘병사’와 같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2000 참고.)

- Yoo, woong dal, *A introduction of semantics*, HanShin Culture, 2002.
- Lee, Ki Dong, *Cognitive Linguistics*, Korean culture, 2000.
- Lee, Sung Ha, *A Understanding on the Grammaticalization*, Korean Culture, 1998.
- Lim, Jiryong, “On the Semantic Analysis of the Paired Compound Words”, *The Journal of badal language*, 10. (1985):89–91.
- Lim, Jiryong, “The correlative system of the meaning of Korean opposites”, *A Doctorate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 1988.
- Lim, Jiryong, *Korean language semantics*, Tower Publisher, 2007.
- Lim, Jiryong, *cognitive semantics*, Tower Publisher, 2010.
- Jeon Soo Tae, *The Semantic Structure of Korean Language Antonym*, ParkLeeJung, 1997.
- Jeong, Dong Hwan, “A Study of Semantic Relations of Coordinate Compound Words in Korean”, *Hungul 211*, 1991.
- Chae, Wan, *A Study of Word Order in Korean*, Tower Publisher, 1986.
- Choi, Hyeon Bae, *The Phraseology of Our Language*, 정음문화사, 1995.
- Choi, Hyeon Bae, *The Phraseology of Our Language*, ZungEum Culture, 1978.
- Huh, Woong, *Phonology of Korean Language*, Sam Culture, 2005.
- Huh, Woong, *Korean linguistics*, Sam Culture, 2009.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Doosan Dongah, 2000.
- YangMei, “Xiandai Hanyu Hechengci Yanjiu”, *doctorate thesis, NanJing College of Education*, 2006.
- WangShaoXin, “Tan Hanyu Fuheci Neibude Yuyi Goucheng”, *YuYan JiaoXue Yu YanJiu*, 3. (1987):87–89.
- WangShuQi, “Hanyu Fuheci Cisuyi he Ciyi de Guanxi”, *Hanyu Xuexi*, 2. (1993):103–105.

- LiuYouXin & ZhangBo, “Hanyu Tongzu Fuheci de Goucheng Guilv ji Tedian”, *Yuyan Yanjiu*, 1,2002:88-89.
- LiuZhengGuang & LiuRunQing, “N+N Gainian Hechengci de Renzhi Fasheng Jizhi”, *Foreign language*, 1. (2004):67-69.
- ZhangXinHong, “XianDai Hanyu Tongsu Fanxuci Lunxi”, *Yili Shifan Xueyuan Xuebao*, 4. (2005):56-58.
- ZhongGuo Shehui Kexueyuan Yuyan Yanjiusuo Cidian Bianjishi, *XianDai HanYu CiDian*, Beijing: Shangwu Yinshuguan, 2005.

[부 록]

중국어 대등합성어 목록¹¹⁾

순번	중국어	한국어	비고	순번	중국어	한국어	비고
1	安危	안위		130	利害	이해	
2	褒贬	포폄		131	廉耻	염치	
3	本末	본말		132	买卖	매매	
4	彼此	피차		133	矛盾	모순	
5	标本	표본		134	明灭	명멸하다	
6	表里	표리		135	男女	남녀	
7	宾主	주객		136	南北	남북	
8	冰炭	물과불	*	137	内外	내외	
9	伯仲	만이와 둘제		138	浓淡	질음과 열음	*
10	薄厚	두께	*	139	婆媳	시아머니와 며느리	*
11	裁缝	재봉		140	铺盖	평평하게 덮어서 피다	*
12	操纵	조종		141	起伏	기복	
13	产销	생산과 판매	*	142	起降	이착륙하다	
14	长短	장단		143	起落	오르내리다	
15	唱和	호응하다		144	起止	시작과 끝.	*
16	朝野	조야		145	阡陌	(논밭 사이에) 중횡으로 난 작은 길	*
17	臣民	관리와 백성	*	146	前后	앞뒤	
18	沉浮	부침	?	147	乾坤	건곤	
19	晨昏	아침과 저녁	*	148	亲疏	친소	
20	成败	성패		149	轻重	경중	
21	城镇	도시와 읍	*	150	曲直	곡직	

11) 중국어 대등합성어의 각각 한국어 표현도 같이 제시했다. 한국어 표현중에 대등합성어가 아닌 것은 “*”로 표시했음. 대등합성어의 결합순서가 반대된 것은 “?”로 표시했음.

22	乘除	승제	*	151	取舍	취사	
23	迟早	조만간	?	152	去留	거류	
24	出没	출몰		153	人物	인물	
25	出纳	출납		154	任免	임면	
26	出入	출입		155	日夕	일석	
27	传习	유습		156	日夜	일야	
28	春秋	춘추		157	日月	일월	
29	雌雄	암수		158	荣辱	영욕	
30	粗细	굵기	*	159	僧尼	중과 비구니	*
31	存亡	존망		160	僧俗	승려와 속인	*
32	大小	크기		161	山水	산수	
33	旦夕	단석		162	赏罚	상벌	
34	得失	득실		163	上下	상하	
35	动静	동정		164	伸缩	신축	
36	弟兄	형제	?	165	深浅	심천	
37	颠末	전말		166	升降	승강	
38	东西	동서		167	生死	생사	
39	东南风	남동풍	?	168	胜败	성패	
40	多寡	다소		169	胜负	승부	
41	多少	다소		170	时空	시공	
42	恩怨	원한	*	171	始末	전말	
43	儿女	아들 딸		172	始终	시종	
44	反正	정반	?	173	是非	시비	
45	方圆	주변		174	是否	...인지 아닌지	*
46	肥瘦	너비	*	175	收发	받고 보내다	*
47	凤凰	봉황		176	收支	수지	
48	夫妇	부부		177	手脚	손발	
49	夫妻	부부		178	手足	손발	
50	风雨	비바람	?	179	首尾	수미	
51	俯仰	부양		180	授受	수수	
52	父母	부모		181	输赢	승패	*
53	父子	부자		182	水火	물과 불	*

54	甘苦	감고		183	睡覺	자다	*
55	干支	간지		184	死活	생사	
56	干群	간부와 대중	*	185	松緊	느슨함과 조임	*
57	剛韌	강인하다		186	夙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
58	綱目	강목		187	損益	손익	
59	高矮	높이	*	188	題跋	제발	
60	高低	고저		189	天地	천지	
61	高下	승부		190	天壤	하늘과 땅	*
62	公婆	시부모		191	天淵	하늘과 깊은 연못	*
63	公私	공과사	*	192	吞吐	삼키고 내뱉다	*
64	功過	공과		193	往返	왕복	
65	功罪	공과		194	往復	왕복	
66	供求	공급과 수요	*	195	往還	왕래하다	
67	供需	공급과 수요		196	往來	왕래	
68	供銷	공급과 판매		197	忘記	잊어버리다	
69	官兵	장교와 사병	*	198	文武	문무	
70	規矩	규율	*	199	問答	문답	
71	貴賤	귀천		200	遐邇	먼 곳과 가까운 곳	*
72	寒熱	한열		201	先後	선후	
73	寒暑	겨울과 여름	*	202	向背	향배	
74	寒暄	인사말 나누다	*	203	消息	소식	
75	行列	행열		204	興衰	흥하고 쇠하다	*
76	好歹	좋고 나쁘다	*	205	興亡	흥망	
77	好賴	좋고 나쁘다	*	206	行止	품행	*
78	好惡	좋고 나쁘다	*	207	兄弟	형제	
79	黑白	흑백		208	休戚	기쁨과 걱정	*
80	橫豎	가로세로		209	修短	장단	
81	橫直	어찌든	*	210	虛實	거짓과 진실	*
82	厚薄	두께	*	211	序跋	서문	*
83	呼吸	호흡		212	言行	언행	
84	呼應	호응		213	炎涼	더운 것과 서늘한 것	*

85	缓急	완급		214	抑扬	억양	
86	毁誉	비방과 칭찬	*	215	因果	인과	
87	晦明	어둠과 밝음	*	216	阴阳	음양	
88	晦朔	그믐날과 초하루	*	217	音义	글자의 독음과 의미	*
89	吉凶	길흉		218	隐现	숨었다 나타났다	*
90	奖惩	상벌		219	盈亏	이득과 손해	*
91	将士	장병		220	优劣	우열	
92	交接	연접		221	幽明	유명	
93	教学	교학		222	宇宙	우주	
94	姐妹	자매		223	原委	본말	
95	今昔	금석		234	源流	원류	
96	进出	진출		235	远近	원근	
97	进退	진퇴		236	早晚	아침과 저녁	*
98	经络	경락		237	增删	첨삭하다	
99	举止	행동거지		238	瞻顾	보살피다	*
100	巨细	크고 작다	*	239	涨落	오르내리다	
101	军民	군민		240	朝夕	조식	
102	开关	스위치	*	241	真伪	진위	
103	快慢	속도	*	242	质量	질량	
104	宽窄	너비	*	243	中外	중외	
105	来回	왔다갔다		244	中西	중국과 서양	*
106	来去	왔다갔다		245	昼夜	주야	
107	来往	왕래	?	246	主次	주종	
108	劳逸	노동과 휴식	*	247	主从	주종	
109	劳资	노동자와 자본가	*	248	装卸	하역하다	*
110	老少	노소		249	子女	자녀	
111	老小	노인과 아이	*	250	姊妹	자매	
112	老幼	노인과 어린 아이	*	251	纵横	종횡	
113	冷暖	인정과 후함	*	252	祖孙	조손	
114	离合	이합		253	左右	좌우	
115	利弊	이해		254	作息	일하고 휴식하다	*
116	利钝	날카로움과 무덤.	*	255			

< Abstract >

There are parity compounds like 밤낮, 여기저기, 오가다(night-day, here-there, come-go) in Korean. Parity compounds are composed of two single words that belong to the same category morphologically and semantically. Parity compounds do not exist only in Korean. There are parity compounds in Chinese, too. For example, 밤낮(night-day) is 晝夜 in Chinese whereas 오가다(come-go) is 來去. If the united orders of the parity compounds are compared, an interesting phenomenon appears. That is, some parity compounds are united in the same order while others are in the opposite order. For example, 오가다(come-go) has the same order in both Korean and Chinese. However, the Chinese counterpart of 밤낮(night-day) is 낮밤(day-night). The united orders of parity compounds are mostly the same in both Korean and Chinese. However, some are also in the opposite orders. The process of coining the compound words reflected some psychological effects. In the coining process of the parity compounds, people's psychological mechanism is certainly reflected. Until now, most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morphology of the compounds in Korean linguistics. This paper intends to compare the united orders of the parity compounds in Korean and Chinese, find the ones with opposite orders, and explore the differences of people's psychological mechanisms from a cognitive linguistics point of view.

Key Words : 대등합성어(parity compounds),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 결합순서(united orders), 심리기체(psychological mechanisms), 대조연구(A comparative study)